

동춘당 후손가 가전 『家藏書籍簿』의 작성시기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Time of Making *GajangSeojeokbu*(家藏書籍簿) Handed Down by Dongchundang(同春堂)'s Descendants' Family

손 계 영(Son, Ke-Yo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가장서적부」의 작성시기 |
| 2. 동춘당 후손가의 가계 | 6. 맺음말 |
| 3. 「가장서적부」의 형태 및 구성 | <참고문헌> |
| 4. 「가장서적부」의 기술내용 | |

<초 록>

「가장서적부」는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의 후손가에 세전되어 오던 필사본 서책목록이다. 개인 또는 문중의 서책목록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연구가치가 높은 자료로 판단된다. 「가장서적부」의 연구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의 작성시기와 작성주체를 밝히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고에서는 동춘당 후손가의 가계를 간단히 소개하고, 가장서적부 의 형태와 구성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목록의 기술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작성시기와 작성주체를 밝히고자 한다.

본 서책목록은 1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마다 1~2단을 기본으로 기록되었다. 전체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는데 각 항목의 제목은 내사질, 가인질, 차례질, 부지류, 서첩류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서책 분류의 개념이라기보다 작성자의 입장에서 서책을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5가지 항목 가운데 내사질과 가인질은 최초에 작성된 내용이고, 이외의 것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최초 작성된 이후에 2~3회 이상의 장서점검이 있었다. 목록의 기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서명(書名)과 책수(冊數)를 기술하였고, 이외에 건수(件數), 신구(新舊)의 구분, 판종(版種), 현토(懸吐) 유무, 표제(表題)의 서체, 중국본 유무, 결실(缺失) 책수(冊數), 대출자 정보 등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작성시기와 작성주체를 살펴본 결과, 최초 작성시기는 1668년에서 1670년 사이이고 목록의 작성주체는 동춘당 송준길이다. 추가 내용은 이후 멀지 않은 시기에 동일 인물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가장서적부 는 17세기 송준길에 의해 작성된 서책목록임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이를 통해 송준길의 장서보유(藏書保有) 현황, 17세기 한 인물의 독서 경향, 지식의 유통, 서인 문중에서 보유한 문집의 성격 등의 연구에 가장서적부」가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要語: 동춘당, 송준길, 은진송씨, 가장서적부, 장서목록, 사장목록, 기록생활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연구교수(sonkey@knu.ac.kr)

접수일: 2007년 11월 18일 최초심사일: 2007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2007년 12월 20일

<ABSTRACT>

GajangSeojeokbu is the hand-written bibliography handed down to Dongchundang(同春堂) Song Jun Gil (宋浚吉, 1606-1672)'s descendants. Since the bibliographies of an individual's or a family's collection of books were rarely found, *GajangSeojeokbu* would be judged a very valuable research materia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date of compiling *GajangSeojeokbu* and its compiler.

In this research, the genealogy of Dongchundang's descendants is briefly introduced and the features and structure of *GajangSeojeokbu* is discussed. Also the details of the list are examined and finally its compilation date and the identity of its compiler are identified.

The bibliography has a total of seventeen pages with one or two columns on each page. The contents were classified into five chapters: Naesajil(內賜秩), Gainjil(家印秩), Charaejil(借來秩), Bujilryu(不秩類) and Seoeopjil(書帖秩). Those chapters seem to be classified only to manage books with ease rather than to represent their contents. Naesajil and Gainjil were first made, while the rest were added later. Since the initial compilation of this bibliography, books were inspected two or three times.

The compiler described basically the title and the number of volumes of each book, and briefly recorded the number of items, the edition statement, types of typography, existence of supplement reading, a calligraphic style of a title, the existence of a Chinese edition, the number of missing volumes, and the information about borrowers.

It can be concluded that *GajangSeojeokbu* was first compiled by Song Jun Gil between 1668 and 1670. It is very likely that the original compiler added some details not long after the initial compilation. Therefore, this bibliography could be used to explore further the features of Song Jun Gil's collection, his reading habits, the distribution of knowledg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ions possessed by Seoin(西人) families.

Key words: *GajangSeojeokbu*, Dongchundang, Song Jun Gil, Eunjin Song Family, Individual Book List

1. 머리말

「家藏書籍簿」는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의 후손인 宋炳夏(1646-1697) 문중에 세전되어오던 필사본으로, 작성 당시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서책을 기록한 장서목록이다. 수오재 송병하 문중에는 고서 304종 1,500책, 고문서 55종 1,861점, 성책고문서 199종 256점, 서화·필첩 161종 175점이 현존하고 있다.¹⁾ 1,500책의 현존 고서와 함께 조선시대에 작성된 장서목록인 「가장서적부」가 전해지고 있어 현존 고서와 장서목록에 기재된 서책을 비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이 자료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장서적부」의 작성시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이 전혀 없어 작성시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이 때문에 현존고서와의 비교와도 불가능하였다. 「가장서적부」의 작성시기를 밝혀내는 일은 현존 고서에 대한 이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작성 당시의 문중 소장 고서의 구성, 장서의 관리현황, 당시에 사용하였던 용어, 서책에 대한 개념, 서책을 빌리고 빌려주던 주변 인물과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고에서는 「가장서적부」를 소장하였던 은진송씨 동춘당 후손가의 가계를 간략히 소개하고, 본 자료의 작성시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형태 및 구성, 기재항목 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동춘당 후손가의 현존 고서들을 통해 「가장서적부」가 작성된 시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동춘당 후손가의 가계

은진송씨 및 동춘당 후손가의 가계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 자세히 소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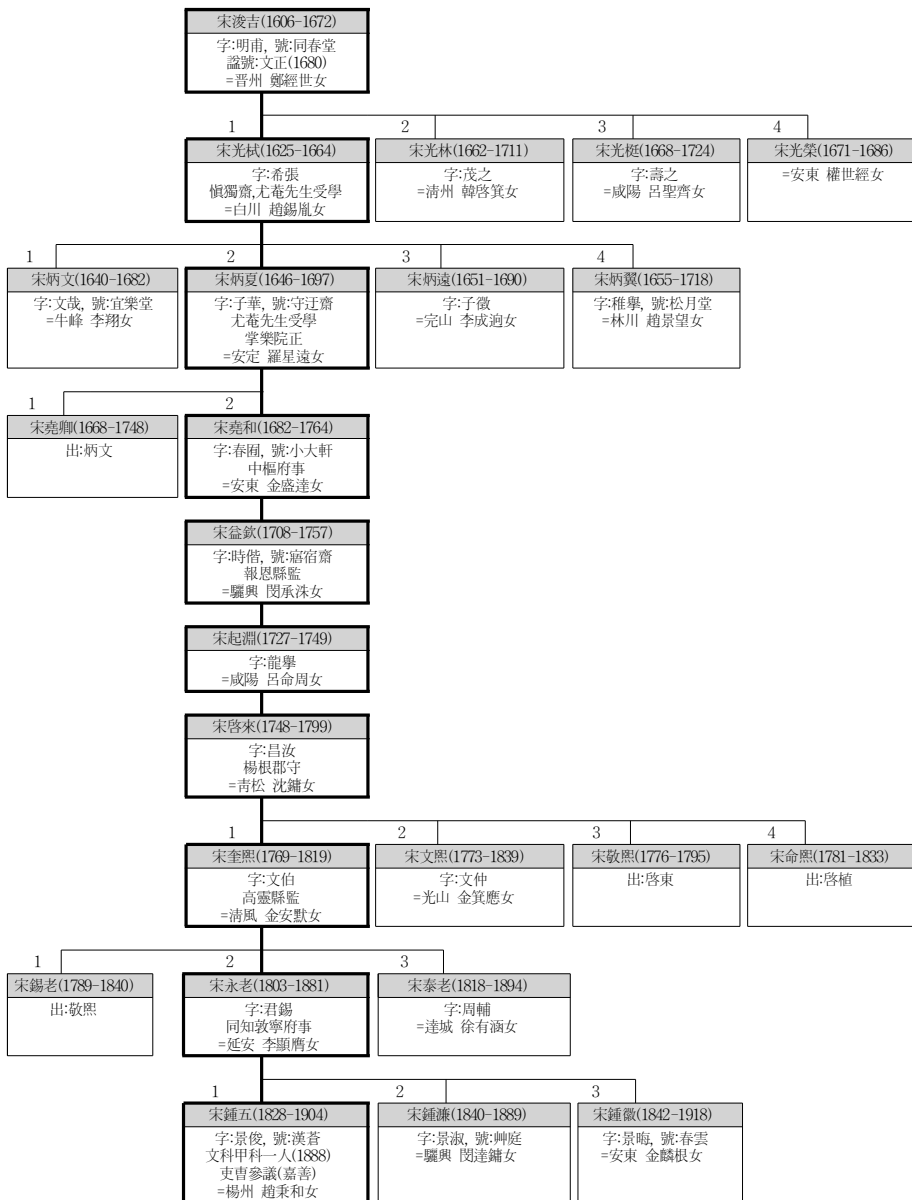
1) 문중 소장 고서 및 서화·필첩의 목록은 「大田(懷德) 恩津宋氏 同春堂 宋浚吉 後孫家所藏 典籍」(장서각 고문서연구실, 「藏書閣」 제13집, 2005, 145-223면)에서 소개된 바 있고, 고문서 및 성책고문서는 「고문서집성」 83 -회덕 은진송씨 동춘당후손가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6)에서 목록과 자료를 일부 소개하였다.

- 196 -

바 있어 본고에서는 가장서적부 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성봉현의 연구를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²⁾ 회덕 은진송씨의 시조는 고려시대 판원사를 지낸 大原이며, 4세 明誼가 회덕의 토성이었던 회덕황씨 황수의 딸과 혼인하면서 은진송씨가 회덕으로 입향하게 되었다. 입향조 송명익의 충청도 회덕에서 세거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5세 극기, 6세 유, 7세 계사, 8세 요년에 이르기까지 은진송씨 가문은 15세기 명문가와와의 혼인을 통해 충청도 지역에서의 경제사회적 기반을 확충해 나갔다. 8세 요년의 차자 여즙은 송준길의 고조부로 일찍 단명하였다. 여즙의 장자 세영(1491- 1532)이 송준길의 증조부이며, 세영의 차자 응서(1530-1598)가 조부이다. 응서의 아들 이창(1561-1627)이 송준길의 아버지이다. 송이창은 율곡 이이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영천군수를 지냈다. 송준길은 이창의 외아들로 김장생·김집의 문인이다. 1624년 진사가 되었고 1630년부터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사퇴하였다. 1633년에 잠시 동몽교관직에 나갔으나 장인 정경세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사퇴하였고, 1649년 김집이 이조판서가 되면서부터 활동하여 통정대부까지 올랐다. 이후 예송논쟁이 일어나면서 관직의 사퇴와 복구가 반복되었고 1672년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사후 1681년에 송현서원에 제향되었고 文正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학문적·정치적 측면에서 송시열과 뜻을 함께 하며 노론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였다. 조선중기의 중요한 사상가이자 정치가로 활동한 인물이다.

송준길의 장자 광식(1625-1664)은 김집·송시열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654년 사마시에 입격하여 공조좌랑·정랑, 이성현감 등을 지내다 40세에 생을 마감하였다. 송광식에게는 4남1녀가 있었는데 차자 송병하(1646-1697)의 가문에 「가장서적부」가 세전되어 왔다. 송준길은 손자 병하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준길은 병하를 자신의 거처인 동춘당 바로 옆으로 분가시켜 곁에 두고자 하였다. 현재 송병하가는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고, 이택의 바로 옆에 송준길의 종가와 동춘당이 있다. 송병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2) 성봉현, 「동춘당 후손(송병하)가의 가계와 고문서」, 『고문서집성 83-회덕 은진송씨 동춘당후손가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19-58면.



<그림 2> 同春堂後孫 家系圖(同春堂 次孫 炳夏 系列)

요경(1668-1748)과 요화(1682-1764)이다. 종손 송병문에게 자식이 없자 병하의 장자인 요경이 병문의 양자로 들어가 종손이 되었고, 차자 요화가 병하의 뒤를 이었다. 송요화는 김창흡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청산현감·진산군수·광주목사 등을 지냈다. 안동김씨 김성달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이후 많은 시문을 남긴 여류시인 호연재 김씨이다. 소대헌 송요화와 호연재 김씨 사이에서 17세 익흠(1708-1757), 18세 기연(1727-1749), 19세 계래(1748-1799), 20세 규희(1769-1819), 21세 영로(1803-1881), 22세 종오(1828-1904), 23세 교순(1852-1936), 24세 내빈(1890-1957), 25세 용억(1914-2004)으로 이어졌다. 용억은 현재 선비박물관장 송봉기의 부친이다.

선비박물관은 대전시 서구에 소재하며 문중 자료를 관리·보존하는 개인 박물관이다. 선비박물관에는 송병하 계열로 세진되던 고서 304종 1,500책, 고문서 55종 1,861점, 성책고문서 199종 256점, 서화·필첩 161종 175점이 소장되다가 2007년 6월에 동춘당 관련 유물과 함께 대전시에 기탁되었다.

3. 「가장서적부」의 형태 및 구성

「가장서적부」의 크기는 37.1×28.4cm로 일반 고서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정의 형태는 다섯 개의 구멍을 뚫어 정식으로 五針眼訂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원래의 장정형태가 아닌 간략한 형태로 남아있다.³⁾ 빛바랜 푸른색의 표지에는 행서의 글씨로 ‘家藏書籍簿’라 적었고, 앞표지를 넘기면 앞표지 뒷면(앞면지)에 별도의 종이를 붙여 4종의 서책을 추가하여 놓았다. 첫번째 장은 1/4 정도가 잘려나간 빈 空紙이고, 앞뒤 표지와 비어있는 첫 장을 제외하면 전체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장의 끝부분에는 ‘合四百五十卷’이라 기록하였고, 뒷표지의 안쪽면(뒷면지)에는 ‘書帖秩’이라 하여 소장하였던 서첩의 목록을 기록하였다.⁴⁾

3) 원래 장정하였던 실이 손상되어 이후에 다시 장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뒤 표지와 공지를 제외한 17장의 경우 한 면에 6행을 원칙으로 하여 大字의 해서체로 정갈하게 기록하였다. 한 면에 한 단인 경우도 있고 두 단으로 나누어 기록한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는 한 면에 한 단을 원칙으로 마지막 장까지 기재한 다음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아랫단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⁵⁾ 뒷면지와 별도의 날장에 기록된 ‘書帖秩’의 경우 3단을 원칙으로 하여 행서와 초서로 기재하였다.

<표 1> 「家藏書籍簿」의 구성

구성	(앞면지)	內賜秩	家印秩	借來秩	不秩類	書帖秩
종수	4	28	237	4	20	108

「가장서적부」에는 5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의 제목을 달았고, 그 아래에 해당 서책을 기재하였다. 각 항목은 종이를 구분하였는데, 앞 항목의 내용이 끝나면 그 다음 장에 새로운 항목이 시작되고, 항목의 제목은 다른 행보다 한 칸 아래로 내려 적었다. 전체를 內賜秩, 家印秩, 借來秩, 不秩類, 書帖秩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종수는 내사질 28종, 가인질 237종, 차래질 4종, 부질류 20종, 서첩질 108종이며 내사질 앞부분인 앞면지에 4종의 서책이 기록되어 있다(표 1). 5가지로 구분하였던 것은 서책 분류의 개념이라기보다 작성자의 입장에서 서책을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앞면지에 별도의 종이를 붙여 기재한 4종과 不秩類 20종은 이후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서적부 에는 서명 아래에 책수를 기재하였는데 기본 책수의 단위인 ‘冊’을 생략하여 책수를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⁶⁾ 단지 앞면

4) 뒷면지에 기록된 ‘書帖秩’의 서첩 31종 이외에도 별도의 날장 종이에 77종의 서첩을 기록하였다. 장서각 소장의 마이크로필름에는 77종의 서첩이 기록된 별도의 종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최근 「가장서적부」를 실사한 결과 날장 종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5) ‘內賜秩’의 경우에는 아랫단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 다음 항목인 ‘家印秩’부터 아랫단의 기재가 시작된다. 마지막 장의 상단에 기록된 서책들이 문집류이고, ‘가인질’ 첫 장의 하단이 문집류로 시작하고 있어 마지막 장까지 기재한 다음 앞부분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6) 결실 책수 및 빌려간 책수, 건별 책수 등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冊’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였으나, 서명 다음에 기재되는 기본 책수는 단위없이 숫자만으로 기록하였다. 예를

지와 不秩類에 기재된 서책의 경우는 예외이다.⁷⁾ 책수 표기에 있어 ‘冊’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다른 항목의 표기 방식과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앞면지 부분의 내용은 별도의 종이에 적어 붙인 형태이므로 이후에 추가된 것임을 형태적으로 쉽게 알 수 있고, 不秩類의 내용도 이때에 함께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借來秩의 4종은 단지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어 추가여부를 추측하기 어렵지만, 앞면지의 내용 및 不秩類와 함께 추가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書帖秩 항목은 기존의 2단이 아닌 3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서체가 해서에서 행초서로 바뀐 점으로 보아 추가된 항목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책수 표기에 있어서 단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앞면지 및 不秩類와는 다른 시기에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체의 변화, 한 면에 기재된 단수의 변화, 단위의 사용 여부, 별도 종이의 부착 여부 등을 통해 이후 추가된 항목들을 알 수 있었으나, 전체의 서풍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한 인물이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시기적으로도 그다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家藏書籍簿」 작성 시기의 구분

작성 시기 구분	항목명	종수	각 항목의 성격
최초로 작성된 항목	內賜秩	28	내사본인 경우
	家印秩	237	家藏 서책인 경우
추가된 항목 1	借來秩	4	빌려온 서책인 경우
	-	4	앞면지에 기록된 4종
	不秩類	20	완질본이 아닌 경우
추가된 항목 2	書帖秩	108	서첩인 경우

「가장서적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內賜秩(28종), 家印秩(237종), 書帖秩(108종)이다. 이는 분류의 개념이 포함된 항목설정이고, 각 항목의 종수도 풍부하

들면 周易 十四, 詩傳 十, 書傳 十, 春秋 十 등과 같다.

7) 예를 들면 書傳 七冊, 小學 二冊, 小學諺解 一冊, 孟子諺解 一冊 등과 같이 책수의 단위에 ‘冊’을 기재하였다.

다. 內賜秩은 국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내사본의 목록이며, 이 항목을 가장 중요시하여 첫 번째로 기재하였다. 家印秩은 서첩을 제외한 문중 소장 서책의 목록이다.⁸⁾ 「가장서적부」 내용의 60%를 차지하며 양적으로나 기재내용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항목이다. 書帖秩에는 法書·筆跡·御筆 등의 글씨뿐만 아니라 頌·碑·碣·表·圖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빌려온 서책을 기록한 借來秩과 낙질본을 별도로 기록한 不秩類의 항목이 있으나 종수가 적고 부수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서적부」에는 서명의 위 또는 아래에 3가지 정도의 색상을 가진 점들이 찍혀있고, 경우에 따라 책수의 변화 및 서책 대출자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작은 종이에 적어 풀로 일일이 붙여놓았다. 이는 장서점검에서 확인된 내용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과정에서 변동된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해당서명 아래에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최초로 작성된 이후에 2~3회 이상의 장서점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가장서적부」의 기술내용

기본적인 기술로 서명과 책수를 표기하였고, 경우에 따라 건수, 新舊의 구분,

8) 家印秩 제목에서 ‘印’자를 사용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印’자는 인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 가운데 印本과 寫本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인쇄본과 필사본의 의미에서 ‘印’자를 사용한 듯하다. 그렇다면 ‘家印’이라는 의미가 私家에서 인쇄한 서책의 의미로 볼 수 있겠으나, 몇 가지 점에서 어폐가 있다. 첫째 가인질에는 다량의 필사본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사가의 인쇄본이라면 필사본이 수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유로 家印秩과 대비되는 항목으로 借來秩이라는 항목을 두어 문중 소장의 유무를 가인질과 차래질로 구분하였다. 만일 가인질이 사가의 인쇄 서책이라는 의미였다면, 그 대비되는 항목으로 官印秩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가인질에 수록된 서책 가운데 역사서가 다량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綱目』, 『鑑綱會要』, 『宋鑑』, 『續綱目』, 『通鑑』, 『史略』, 『歷代史略抄』, 『史漢一統』, 『漢史抄』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역사서들은 사가에서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家印’은 ‘사가의 인쇄본’이라는 의미보다 ‘문중 소장의 서책’이라는 총체적인 의미가 적합하다.

판종, 현토 유무, 표제의 서체, 당본 유무, 결실 책수, 대출자 정보 및 장정 형태 등을 해당 부분에 간략히 기록하였다.

1) 서명

서명을 표출하여 축약서명으로 기술하였다. 예를 들면 大學諺解를 ‘學解’로 표기하였고, 漢史列傳抄는 ‘漢史抄’로 축약하였다. 이외에도 ‘朱書節要’, ‘家語’, ‘語類’ 등과 같이 축약된 서명을 사용하였다. 해당 서명이 바로 앞의 서명을 포함한 경우에는 앞 서명의 글자를 생략하고 한 칸 아래에 내려적었다. 예를 들어 ‘孝經’ 다음이 ‘孝經諺解’라면, 孝經諺解의 항목에서는 ‘孝經’을 생략하고 한 칸 내려 ‘諺解’라고 기술하였다. 즉 한 칸 내려쓴 서명은 바로 앞의 서명이 반복됨을 의미한다.

2) 책수 및 건수

서명 아래에 책수 및 건수를 표기하였는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책수의 표기에 있어 기본적으로 ‘冊’이라는 단위를 생략하였다(옆면지 4종과 不秩類 20종 제외). 동일한 판본이 2부 이상일 경우 二件, 三件 등 ‘件’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건수를 표기하였다.

3) 新·舊의 구분

같은 서명의 책이 간사 시기에서 선후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新舊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예를 들면 周易諺解의 경우 “新印本三 舊寫本一”이라고 표기하여 최근의 것(新件)이 인본 3책이고 이전의 것(舊件)이 사본 1책이라 하였다. 心經의 경우 “舊一件二冊 新二件各二冊”이라 기재하였는데, 이전의 것(舊件)이 2책짜리 1부이고, 최근의 것(新件)이 2책짜리 2부임을 알 수 있다. 『가장서적부』에서 新·舊를 구분한 경우는 <표 3>과 같다.

<표 3> 新·舊를 표기한 서명

	서명	新	舊		서명	新	舊
1	小學		四	21	近思錄	二件各四	四
2	周易諺解	印本 三	寫本 一	22	家禮	八分目 二件	上下 一件
3	詩傳諺解	印本 七	寫本 三	23	家禮考證	印本 三	寫本 三
4	孟子		七	24	喪禮備要	三	一
5	論語		七	25	五服沿革圖	一	一
6	中庸	一	二	26	南華經	五	一
7	大學	一	栗吐 一	27	啓蒙傳疑	一	二
8	孟解	七	七	28	通鑑	十五	
9	論解	四	四	29	史略	七	
10	庸解	二	鑄字 一	30	歷代史略抄	二	
11	學解	二		31	漢史抄		一件
12	詩正文	合	二	32	古文眞寶	合前後集 七	後集 二 不秩
13	書正文	合	二	33	語錄解	一	
14	小學	二件	栗吐	34	大典	新件宋佐郎	三 舊件申青山
15	孝經大全	一		35	大明律	三	
16	孝經諺解	一		36	詩學指南	四	四 維冊不秩
17	孝經		唐本	37	精言妙選	寫本 一	寫破冊 一 印本 一
18	四聲通解	二件		38	春種	二	一
19	心經	二件 各二冊	一件 二冊	39	沙溪先生墓表	一	一
20	心經釋疑	一	一				

4) 版種

판종은 印本 · 寫本 · 鑄字 3종류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는데, 판종을 표기한 경우는 14종으로 매우 적다. 서책이 필사된 경우에는 寫本으로 단독 표기하였으나, 같은 서명 아래에 서로 다른 판종이 있는 경우에는 印本과 寫本, 寫本과 鑄字, 印本과 鑄字를 함께 표기하였다. 판종이 표기된 예는 <표 4>와 같다.

<표 4> 판종을 기술한 서명

	서명	印本	寫本	鑄字		서명	印本	寫本	鑄字
1	周易諺解	新印本	舊寫本		8	文章範執	印本	寫本	
2	詩傳諺解	新印本	舊寫本		9	近思錄釋疑		寫本	
3	庸解			舊鑄字	10	家禮考證	新印本	寫本 舊件	
4	學集覽		寫本		11	家禮集覽		寫本	
5	經書辨疑	印本	寫本		12	漢史抄	吐印本		鑄字
6	孟正文		寫本	鑄字	13	精言妙選	舊印本	新寫本 舊寫破冊	
7	朱書記疑		寫		14	愚伏集	印本十	寫本	

5) 懸吐 유무

懸吐本인 경우에 ‘吐’라는 글자를 기재하였는데 모두 4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大學 舊栗吐一”이라고 하여 大學의 율곡 현토본 1책을 기록하였고, 이외에도 “小學 舊件 栗吐”, “近思錄釋疑 吐一冊”, “漢史抄 吐印本”과 같이 소학·근사록 석의·한사열전초에 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表題의 서체

「가장서적부」의 특이한 사항 중 하나가 表題의 서체를 기술하였다는 점이다. 표제가 일반적인 해서·행서·초서체인 경우에는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았고, 예서·전서·팔분서인 경우 隸目·篆目·八分目으로 표기하였다. 표제의 서체를 구분하여 기술함으로써 해당 서책의 형식적인 특징을 남기고자 하였다. 표제의 서체를 기술한 경우는 <표 5>와 같다.

<표 5> 표제의 서체를 기술한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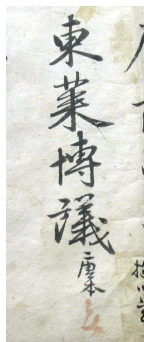
	서명	八分	篆	隸		서명	八分	篆	隸
1	春秋	八分題目		隸目	6	周易			隸目
2	庸或	八分			7	孟子		篆目	
3	朱書節要	八分目			8	近思錄釋疑		篆目	
4	家禮	新八分目		隸目	9	易學啓蒙		篆目	
5	周易		篆目		10	韻會		篆目	

7) 唐本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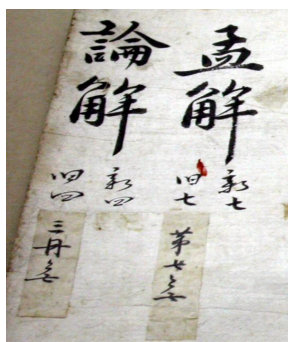
중국본인 경우에 ‘唐本’이라고 표기하였는데, 爾雅註疏, 周禮訓雋, 宋名臣言行錄, 孝經, 續綱目, 歐文, 唐詩, 本草, 東萊博議 등 총 9종의 중국본이 확인되고 있다.

8) 결실 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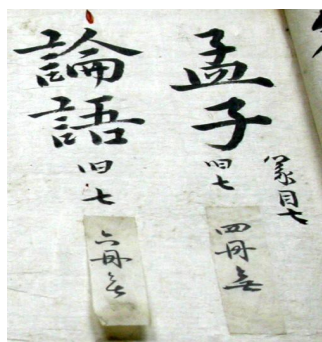
당초 「가장서적부」가 작성될 때에는 결실된 책수를 ‘小學 四內一失’, ‘詩學全書 廿四內一失’, ‘萬病回春 八內一失’과 같이 ‘失’자로 표현하였다. ‘失’자로 표기한 경우는 6건에 불과하다. 이후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의 서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결실된 책이 많아지자 朱墨으로 결실 내용을 표시하거나 별도의 작은 종이에 기록하여 서명과 책수 아래에 붙여놓았다. 이때에는 ‘無’자로 결실 책수를 표시하였다. 이후의 장서점검을 통한 결실 책수를 기술한 예는 <그림 3>과 <그림 4>와 같다.



<그림 3>
주목으로
‘無’ 표시



<그림 4> 별지에 결실 책수를 ‘無’자로 표시하여
해당 항목 아래에 부착



9) 대출자 정보

책을 빌려온 경우나 빌려준 경우에는 ‘〇〇借來’ 또는 ‘〇〇借去’라고 기록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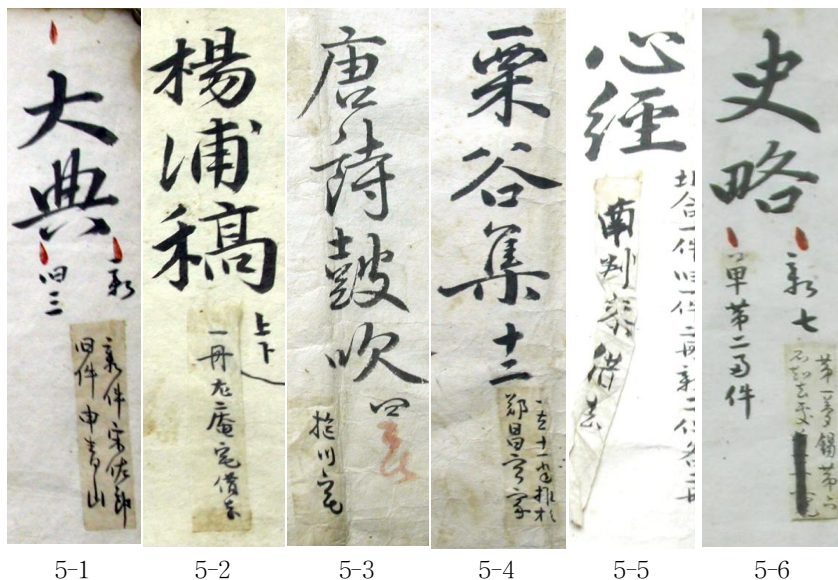
대출자 정보를 기술하였다. 대부분 별도의 종이에 적어 풀로 붙인 형태이다. 서명과 책수 아래에 특정 인물 또는 집을 의미하는 문구가 있으면, 借來·借去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출자 정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책을 빌려온 경우는 6건, 빌려준 경우는 13건으로 <표 6>과 같다.

<표 6> 대출자 정보가 기술된 경우

구분		서명	대출 사항을 알 수 있는 기록
빌려온 책	借來	野言別集	李擇之家冊借來者
		文獻通考	[借來秩]
		綱目	[借來秩]
		東史纂要	[借來秩]
		醫學入門	[借來秩]
		五禮儀	宋□海宅冊
빌려준 책	借去	小學諺解	初卷外城金參奉 借去
		心經	南參判 借去
		守夢集	一件 申進善 借去
		楊浦稿	一冊 尤庵宅 借去
		趙子昂赤壁賦	一 夙來 借去
		續學或	李思永
		家禮	一件 宋夏□, 一件 黃教宦
		史略	第一 夢錫, 第六 不知去處
		大典	新件 宋佐郎, 舊件 申青山
		本草	一冊無 當問于申生員家次
		唐詩鼓吹	抱川宅
		栗谷集	一去十一 當推於鄭昌言家

<그림 5-1>에서는 ‘新件 宋佐郎 舊件 申青山’이라고 적어 최근의 것(新件)은 송좌랑이 빌려갔고, 이전의 것(舊件)은 신청산이 빌려갔다고 기술하였다. <그림 5-2>에서는 “一冊尤庵宅借去”라 하여 上下 2冊 가운데 1책을 우암 송시열댁에서 빌려갔음을 표시하였다. <그림 5-3>의 唐詩鼓吹는 抱川宅에서 빌려갔었고,

<그림 5-4>의 栗谷集은 12책 중 1책이 빠져있어 당시 11책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鄭昌言家에 따져물어야 되겠다고 기록하였다(“一去十一 當推於鄭昌言家”). <그림 5-5>의 心經은 南參判이 빌려갔고, <그림 5-6>의 史略 제1책은 宋夢錫이 빌렸는데 제6책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기록하였다.



<그림 5> 대출자 정보를 첨지에 기록하여 서명 아래에 부착한 예

기본적으로 서명을 기재하였고, 그 아래에 책수를 숫자 또는 上下로 표시하였다. 같은 서명 아래에 2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二件, 三件이라 표시하여 각 권의 책수 및 특징을 기재하였다. 서책 제작시기의 전후관계(新, 舊), 판종(寫本, 印本, 鑄字),懸吐의 유무, 表題의 서체(八分目・篆目・隸目), 중국본(唐本) 여부, 결실 책수, 대출자 정보 등을 기술하였다.

5. 「가장서적부」의 작성시기

작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장서적부에 「동춘당선생문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家藏書籍簿」의 특징은 「同春堂先生文集」 및 별집·연보 등 동춘당과 관련되는 서적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동춘당 문중에서 문중소장 장서를 기록·점검하던 목록임에도 불구하고 동춘당의 문집이 없다는 것은 동춘당의 문집이 간행되기 이전의 목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춘당선생문집」의 간행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⁹⁾

1682년에 肅宗은 송준길의 문집을 간행하라고 교서관에 명하였고,¹⁰⁾ 1685년(肅宗11) 5월에 송준길의 문집을 찾아 들이라고 왕명을 내렸다.¹¹⁾ 그해 7월에는 숙종이 직접 송준길의 문집을 열람한 후, “문정공 송준길의 문집은 이미 성람(省覽)하였다. 특별히 교서관에 교정·간행하게 하여 나의 뜻을 표시하라”고 하였다.¹²⁾ 이때 숙종이 열람한 문집은 1682년에 있었던 왕명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1차 초고본인지 문집의 초간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후 행해진 교감 및 繕寫작업을 고려한다면 1차 초고본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1685년 8월에 刊役을 주도한 민유중 등이 다시 송시열의 교감을 거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다시 고쳐 베끼는 작업 후 교서관으로 회부하였다.¹³⁾ 이 과정에서 간행이 늦어졌고, 1686년 1월에 “문원공 김장생의 문집을 교서관에 보내 문정공 송준길의 문집과 함께 開刊하도록 하라”는 명이 있었다.¹⁴⁾ 1685년, 민유중은 송시열에게 筵說 1통과 문집 몇 권을 보내 교감을 부탁하였는데,¹⁵⁾ 송시열의 교감은

9) 「동춘당선생문집」의 간행문제는 민족문화추진회의 동춘당집해제 내용을 참조하였다.

10) “壬戌(1682)…命芸館刊行文集[先生於大小文字隨即應副率無留稿至是有刊行特命始加蒐輯閱數年及成書尤菴先生實主刪定然多遺失不錄凡二十四編板在黔潭書院]” 「同春堂先生續集」卷10, 「年譜」.

11) “命謄入受疇疏 又命覓入金長生宋浚古文集” 肅宗實錄 卷16, 肅宗11年 5月 26日 乙酉條.

12) “傳曰 文正公宋浚古文集 既已省覽 特令校書館 校讎利給 以表予意” 肅宗實錄 卷16, 肅宗11年 7月 28日 丙戌條.

13) 「文貞公遺稿」卷2(「與黃周卿世楨」, 1685년 8월)

14) “仍敎曰 文元公文集閱覽後 當下于政院 與文正公文集 出付芸閣 一體開刊” 肅宗實錄 卷17, 肅宗12年 1月 12日 丁卯條.

1686년 11월에 끝난 것으로 보인다.¹⁶⁾ 이어 繕寫 작업에 들어갔으나 1687년 5월에도 마무리되지 않아 미처 문집간행을 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송시열의 편지가 남아있다.¹⁷⁾ 문집을 인행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1687년 6월에 민유중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곧장 문집이 간행되었으리라 단정할 수 없지만, 전후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 후 멀지 않은 시기에 문집이 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⁸⁾ 민족문화추진회의 「동춘당집」 해제에 의하면 1687년 후반에서 1689년 기사환국이 일어나기 이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⁹⁾ 이와 같이 「동춘당선생문집」이 1687년경 또는 직후에 간행되었다면, 동춘당의 문집 및 연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家藏書籍簿」는 1687년경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동춘당 후손가의 현존 고서 가운데 동춘당의 장서인이 찍혀있는 경우 대부분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동춘당의 2孫인 송병하 장서인이 찍혀 있는 현존고서는 목록에 전무하다. 현존 고서 304종 1,500책 가운데 동춘당 장서인이 찍혀있는 경우는 총 13종이다.

그 가운데 「가장서적부」에 기재된 서책은 12종이다. 즉 동춘당이 직접 사용한 현존 고서 대부분이 「가장서적부」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 7>은 ‘同春翁’ 印文의 장서인이 찍혀있는 고서 13종과 그것이 「가장서적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15) 「文貞公遺稿」 卷10(「上尤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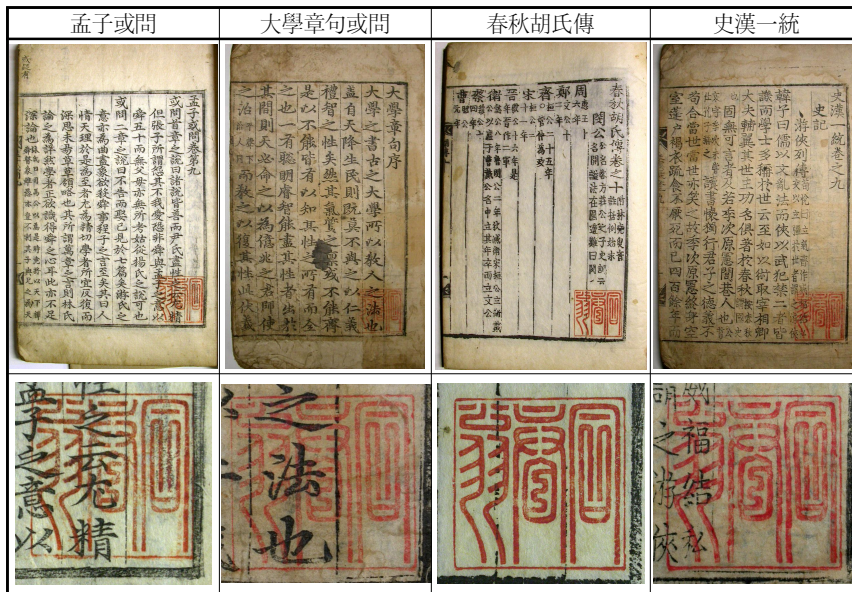
16) 「文貞公遺稿」 卷2(「上尤庵」, 1686년 11월)

17) 「宋子大全」 卷63(「答閔持叔」, 1687년 5월)

18) 연세대 소장 「동춘당선생문집」(811.98)에는 ‘康熙三十四年(1695)七月十五日’에 작성된 內賜記가 있어 1695년 이전에 문집의 初刊本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720년에 「동춘당선생연보」 4권2책을 활자로 인쇄하였고(庚子…年譜成[門人 黃世楨 權尙夏 洪得禹 相議 草定年譜三冊 尤菴先生以爲太多 遂加刪節 未及卒業 仍被後命 後曾孫堯佐 始成其役 凡四卷二冊]), 1741년에 다시 목판으로 중간하였다(辛酉…重刊年譜[庚子開刊時以活字印數百本 原本有一二失實處 先生外曾孫李緯 追加是正 至是 曾孫堯輔任全州判官 與方伯權公櫛 謀刻事 不一月而訖]). 1768년에는 興巖書院에서 문집의 重刊本을 간행하였고(戊子…重刊文集于興巖書院), 1928년에 「동춘당선생속집」을 추간하였다(庚戌…後十八年續集成). 「同春堂先生續集」 卷10, 「年譜」

19) 「同春堂集」 해제(민족문화추진회 <http://www.minchu.or.kr/MAN/index.jsp>)

동춘당 후손가 가진 「家藏書籍簿」의 작성시기에 대한 고찰



<그림 6> 동춘당 장서인(同春翁)이 찍혀있는 예

<표 7>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 현존 고서

번호	'同春翁'이 찍혀 있는 현존 고서	「家藏書籍簿」家印秩에 기재유무	
		유무	「가장서적부」에서의 서명
1	孟子或問	○	孟或
2	大學章句或問	○	學或
3	春秋胡氏傳	○	春秋
4	史漢一統	○	史漢一統
5	朱文酌海	○	朱文酌海
	朱文酌海		
6	小學諸家集註	○	小學
7	兩先生往復書	×	-
8	歐陽文忠公集	○	歐文
9	白沙先生集	○	白沙集
10	愚伏先生文集	○	愚伏集
11	二程全書	○	二程全書
12	破閑集	○	破閑集
13	詳說古文眞寶大全	○	古文眞寶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의 장자인 송광식(1625-1664)은 송준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송준길의 사후에는 그의 차손 송병하(1646-1697)가 현존 고서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 고서 가운데 송병하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경우는 총 3종이다. 그러나 이들 고서는 「가장서적부」에서 찾을 수 없다(표 8 참조). 즉 송병하 당시의 고서는 「가장서적부」에 포함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송병하가 장서인을 찍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아 적어도 송병하가 자신의 장서에 장서인을 찍기 이전에 「가장서적부」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동춘당의 次孫 송병하(1646-1697)의 장서인이 찍혀있는 현존 고서

	송병하 장서인이 찍혀있는 현존 고서	「가장서적부」 家印秩에 기재유무
1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	×
2	筌蹄	×
3	儷文選	×

셋째, 현존하는 동춘당의 내사본을 ‘內賜秩’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家藏書籍簿의 ‘內賜秩’에는 28종의 내사본이 기재되어 있는데, 송준길의 선조 중 특정 인물이 내사받았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송준길 이전의 문중인물을 살펴본 결과 동춘당에게 하사된 내사본일 가능성이 높다.

<표 9> 「가장서적부」 內賜秩에 포함되는 서명

1	周易	8	大學	15	文選	22	通鑑
2	詩傳	9	小學	16	朱書節要	23	續綱目
3	書傳	10	小學諺解	17	韻會	24	東國通鑑
4	春秋	11	儀禮	18	孝經	25	醫學正傳
5	論語	12	語類	19	孝經諺解	26	訓蒙字會
6	孟子	13	自警編	20	瀛奎律髓	27	小學舊件
7	中庸	14	名臣言行錄	21	警民編	28	內訓

송병하가에 세전되는 고서 1,500책 가운데 송준길이 하사받은 내사본은 4종이 현존한다.²⁰⁾ 그 가운데 瀛奎律髓, 「宋名臣言行錄」, 「楚辭」 3종은 내사된 시기를 알 수 있으나, 文選은 제1책이 결실되어 내사시기를 알 수 없다.²¹⁾ 「가장서적부」의 ‘내사질’에는 ‘영규율수’, ‘송명신언행록’, ‘문선’이 포함된 반면, 1670년에 내사된 「초사」는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내사기가 없는 「문선」은 「초사」의 내사 이전에 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서적부」에 ‘초사’가 배제된 사실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초사」를 내사받았던 1670년 이전에 「가장서적부」가 작성되었거나, 작성자의 착오로 인해 ‘내사질’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표 10> 「가장서적부」 ‘內賜帙’의 내사본 28종 가운데 간행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7종

서 명	간행관련시기	근 거
1 瀛奎律髓	1658(內賜)	“順治十五年(1658)三月十六日...宋浚吉 瀛奎律髓一件...”(內賜記, 문중 소장)
2 名臣言行錄	1666(內賜) 1666(重刊)	“康熙五年(1666)十月二十三日...宋浚吉 宋名臣言行錄一件...”(內賜記, 문중 소장) “今湖南按使閔公維重重刊是書...崇禎丙午(1666)正月日恩津宋時烈謹跋”(本書 跋文)
3 孝經諺解	1666(內賜)	“康熙五年(1666)十月二十三日...宋浚吉 孝經諺解一件...”(內賜記, 규장각 소장)
4 周易	1665(內賜)	“崇禎乙巳(1665)九月十四日...宋時烈 周易 一件...”(內賜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5 自警編	1664(跋文)	“時闕逢執徐(甲辰, 1664)季春日 恩津宋時烈謹跋”(本書 跋文)
6 警民編	1656(刊布)	“厚源又曰 警民篇 乃己卯名賢金正國爲黃海監司時所編也 本道民俗 頑蠢無知 正國作是書以教之 請亦令刊布”(「孝宗實錄」卷1, 孝宗7年 7月 28日 甲戌條)
7 內訓	1656(刊布)	“知經筵李厚源曰 內訓 乃昭惠王后所撰之書也...上曰 此書前未有聞 亦不得見 卿須廣加聞見 而求得 送于三南 使之刊布”(「孝宗實錄」卷1, 孝宗7年 7月 28日 甲戌條)

20) 내사본의 서명은 「瀛奎律髓」(1658년 내사), 「宋名臣言行錄」(1666년 내사), 「楚辭」(1670년 내사), 文選 (第1冊 缺失, 내사시기 알 수 없음)으로 총4종이 문중 소장으로 남아있다.

21) 제1책이 결실되었음에도 내사본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매 책의 앞부분에 송준길이 내사받은 서책임을 기록한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내사본을 적지 않게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內賜’, ‘臣浚吉拜受’라는 인문의 개인 장서인 2종이 내사본의 각 책마다 찍혀있음을 다른 내사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내사본과 같은 귀중한 서책이 착오에 의해 배제되었을 가능성은 남득하기 힘든 설정이다.

「가장서적부」의 내사본 28종 가운데 ‘영규율수’와 ‘명신언행록’은 문종 소장의 내사본을 통해 각각 1658년과 1666년에 내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송준길이 내사받은 ‘孝經諺解’를 규장각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1666년 내사본으로 확인되었다.²²⁾ ‘周易’은 송준길과 같은 시기에 내사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송시열의 내사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²³⁾ 송시열의 내사시기가 1665년인 것으로 보아 「가장서적부」의 내사질에 기록된 송준길의 ‘周易’ 또한 1665년 내사본으로 생각된다. ‘自警編’의 경우 송시열의 발문이 1664년에 작성되었으므로 바로 직후에 간행·내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警民編’과 ‘內訓’의 경우에는 1656년에 간행을 명하는 실록 기사를 통해 刊布 직후 간행·내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사질’에 기록된 28종의 간행·내사 시기를 모두 추적하진 못했지만 앞서 서술한 7종의 사례에 있어서는 1656년에서 1666년 사이에 동춘당이 내사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존 고서 가운데 1670년에 내사받은 「초사」가 「가장서적부」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아 그 이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가장서적부 에 기재된 문집류가 동춘당 생전에 간행되었던 것이다. 가장서적부」에는 48종의 문집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의 간행시기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²⁴⁾ 간행시기가 확인되는 문집 가운데 가장 늦게 간행된 것은 1668년에 간행된 「竹牖集」이므로 「가장서적부」의 작성시기는 1668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22) 어떤 경로로 규장각에서 소장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효경언해 (古 1328 2)의 내사기에는 1666년 10월 23일에 송준길이 내사받는다는 기록이 있다. “康熙五年(1666)十月二十三日內賜議政府左參贊宋浚吉孝經諺解一件命除謝恩右承旨 臣李(着名)”

2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周易傳義大全」(한貴古朝03-10)에는 1665년 9월 14일에 송시열이 내사받음을 기록한 내사기가 있다. “崇禎乙巳(1665)九月十四日內賜議政府右贊成宋時烈周易一件命除謝恩左副承旨臣宋(着名)”

24) 작성한 표의 문집 간행시기는 대부분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해제」의 문집 편찬 및 간행에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하였으며, 몇 종의 경우에는 현존본의 서발문 작성시기를 통해 추정하였다.

<표 11> 「가장서적부」에 기록된 문집의 간행시기

	17세기 간행시기(추정)	문집명	피전자	비고
1600	1600년(改補・後刷)	沖菴集	金淨(1486-1521)	1552년(初刊)
	1600년(增補刊)	晦齋集	李彦迪(1491-1553)	1572년(初刊)
	1603년	大谷集	成運(1497-1579)	
	1604년(初刊)	南冥集	曹植(1501-1572)	1606년(重刊)
	[1606~1608년(初刊)]	蘭雪軒集	許楚姬(1563-1589)	1608년(重刊)
1610	[선조년간(初刊)]	聽松集	成守琛(1493-1564)	1806년(重刊)
	1610년(重刊)	立岩集	閔齊仁(1493-1549)	
	1611년(初刊)	栗谷集	李珥(1536-1584)	
	1615년(重刊)	冶隱集	吉再(1353-1419)	[1570년(初刊)]
	[序:1618, 跋:1617]	桑榆集	柳思規(1534-1607)	
1620	1622년(初刊)	龜峰集	宋翼弼(1534-1599)	1762년(重刊)
	1626년	牧隱集	李穡(1328-1396)	
	1629년	象村集	申欽(1566-1628)	
	1629년	高峰集	奇大升(1527-1572)	
	1629년	白沙集	李恒福(1556-1618)	
1630	1631년	北窓集	鄭諤(1505-1549)	
	1632년	芝川集	黃廷彥(1532-1607)	
	1634년	容齋集	李荇(1478-1534)	
	1635년(初刊)	疎庵集	任叔英(1576-1623)	
	1635년(三刊)	稼亭集	李穀(1298-1351)	1364년(初刊), 1422년(重刊), 1662년(四刊)
1640	1636년	楊浦稿	崔殿(1567-1588)	
	1636년(初刊)	寒岡集	鄭述(1543-1620)	1680년(重刊)
	1640년(初刊)	仙源遺稿	金尙容(1561-1637)	
	1641년	龜岩集	李楨(1512-1571)	
	1643년	谿谷集	張維(1587-1638)	
1650	1645년(重刊)	保閑齋集	申叔舟(1417-1475)	1487년(初刊)
	[1646년경]	白洲集	李明漢(1595-1645)	
	1649년(重刊)	佔畢齋集	金宗直(1431-1492)	1520년(初刊)
	1651년(重刊)	挹翠集	朴閔(1479-1504)	1514년(初刊)
	1651년경(初刊)	玄谷集	鄭百昌(1588-1635)	
	1652년	思庵集	朴淳(1523-1589)	
	1656년	九畹集	李春元(1571-1634)	
	1657년	愚伏集	鄭經世(1563-1633)	
	1658년(初刊)	睡隱集	姜沆(1567-1618)	
	1658년(初刊)	玄谷集	趙緯韓(1567-1649)	

1650	[跋:1659년]	破閑集	李仁老(1152-1220)	
	[序:1659년]	峒隱集	李義健(1553-1621)	
1660	1660년(初刊)	白麓 丫湖稿	辛應時(1532-1585) 辛慶晉(1554-1619)	
	1660년	桐溪集	鄭蘊(1569-1641)	
	1661년	守夢集	鄭曄(1563-1625)	
	1662년	晚翠集	吳億齡(1552-1618)	
	[1663년 이후]	德溪集	吳健(1521-1574)	1663년 (年譜 編次 및 文集 修正)
	1664년경(原集)	敬亨集	李民成(1570-1629)	정조말경(續集)
	1665년	西垞集	柳根(1549-1627)	
	1665년(初刊)	龔岩集	李賢輔(1467-1555)	
	[序:1666]	訥齋江叟稿	朴增榮(1464-1493) 朴薰(1484-1540) 父子	
	1668년(重刊)	濯纓集	金駟孫(1464-1498)	1519년(初刊)
	1668년	竹牖集	具瑩(1584-1663)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장서적부」에는 1687년경에 간행되었다고 추정되는 「동춘당선생문집」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1687년경 이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동춘당의 장서인이 있는 현존고서는 대부분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동춘당의 차손인 송병하(1646-1697) 장서인이 찍혀 있는 현존고서는 목록에 전무하므로 송병하가 家傳되어오던 장서를 정리하기 이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현존하는 동춘당의 내사본 4종 가운데 1658년에서 1666년 사이에 받았던 내사본은 「가장서적부」 ‘內賜秩’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1670년 내사본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1670년 이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④ 가장서적부」에 기재된 문집들이 동춘당 생전에 간행된 적이 있었고, 그 가운데 가장 늦게 출판된 문집이 1668년으로 확인되므로 「가장서적부」는 1668년 이후에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가장서적부」는 1668년에서 1670년 사이에 최초로 작성되었다.

이때에는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이 생존하였던 시기이고, 전반적인 정황으로 보아 장서목록 작성의 주체는 송준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글씨의 주인공(書者)이 송준길인지는 알 수 없다. 송준길의 아들 또는 손자가 글씨를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준길의 아들 송광식은 1664년에 사망하여 장서목록이 작성되던 시기에 살아있지 않았으므로 아들 송광식의 글씨는 아니다. 송광식의 아들 송병하는 당시의 나이가 20대이었다는 점과 송병하의 장서인이 있는 서책이 장서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 보아 송병하가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송준길이 직접 작성하였을 경우를 고려하여 「가장서적부」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송준길의 글씨를 비교해 보았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서적부 의 字形을 송준길의 글씨와 비교해보면 글자를 구성하는 짜임에 있어 매우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堂’과 ‘選’자는 한사람이

<표 12> 「가장서적부」와 송준길 글씨 비교²⁵⁾

	「가장서적부」	閔機神道碑銘帖(*) 同春筆跡(**) 同春筆跡(***)		가장서적부	閔機神道碑銘帖(*) 同春筆跡(**) 同春筆跡(***)
子			紀		
堂			孝		
恩			選		
石			公		
高			學		
自			警		

썼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붓놀림이나 글자의 짜임이 매우 흡사하다. 書者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行草의 글씨에 있어 이토록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동일인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서자에 관계없이 「가장서적부」의 작성 주체는 송준길이고, 최초의 작성시기는 1668년에서 1670년 사이이다. 이후에 추가항목이 작성된 최하한시기는 동춘당 문집 간행의 추정시기인 1687년경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추가된 내용이 동일 인물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최하한시기는 1672년이 된다.

6. 맺음말

「가장서적부」는 은진송씨 송준길 후손가에서 세전되어 오던 서책목록이다. 자료의 잠재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이 작성된 시기가 밝혀지지 않아 자료 이용에 제한점이 많았다. 본고에서는 자료의 형태·구성·기술내용 등을 살펴보고 그 작성시기를 제시하였다.

형태적으로는 본문이 1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마다 1~2단으로 기록하였다. 전체의 구성을 살펴보면 내사질, 가인질, 차례질, 불지류, 서첩류의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가운데 내사질과 가인질이 최초에 작성된 내용이고, 이외의 것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초 작성된 이후에 2~3회 이상의 장서점검이 있었고 변동사항을 주목 또는 별지를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서명과 책수를 기술하였고, 이외에도 건수, 新舊의 구분, 판종, 현토 유무, 표제의 서체, 중국본 유무, 결실 책수, 대출자 정보 등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최초 작성시기는 1668년에서 1670년 사이이고 동춘당 송준길이 목록작성의 주체이다. 추가

25) 비교에 사용된 송준길의 글씨는 ① 宋浚吉, <閔機神道碑銘帖>, 34.0×26.0cm, 1669년, 학교재 소장(『朝鮮中期書藝』, 예술의전당, 1993, 도84에 수록), ② 宋浚吉, <同春筆蹟>, 54.2×34.5cm, 17세기, 진주정씨 우복종택 소장. ③ 宋浚吉, <同春筆蹟>, 44.5×31.0cm, 현종년간, 선비박물관 소장(『한국간찰자료선집VI -회덕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후손가편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194-223면에 수록)의 해행서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내용은 이후 멀지 않은 시기에 동일 인물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고에서는 「가장서적부」의 작성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몇 가지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있다. 즉 처음에 작성된 이후 추가작성한 정확한 시기, 「가장서적부」를 기준으로 장서점검한 횟수 및 시기, 작성자의 서책분류 개념 및 서명 배열의 원칙, 기재된 축약서명 및 별서명의 원칙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의 연구에서 보충하고자 한다.

가장서적부와 같은 성격의 장서목록이 문중 또는 기관에서 소장되고 있으나 17세기 이전의 것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17세기 문중에서의 장서보유 현황, 17세기 문중의 독서 경향, 지식의 유통, 서인 문중에서 보유한 문집의 성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原典

「朝鮮王朝實錄」

「同春堂先生文集」

「同春堂先生續集」

「文貞公遺稿」

「宋子大全」

「家藏書籍簿」(대전시 소장본)

「閔機神道碑銘帖」(학고재 소장본)

「同春筆跡」(우복종택 소장본)

「同春筆跡」(대전시 소장본)

2. 논문

- 장서각 고문서연구실. “大田(懷德) 恩津宋氏 同春堂 宋浚吉 後孫家 所藏 典籍.”
藏書閣 제13집(2005). 145-223.
- 성봉현. “동춘당 후손(송병하)가의 가계와 고문서.”, 고문서집성 83 -회덕 은진
송씨 동춘당후손가편-. 2006. 19-58.

<부록> 「가정서적부」에 기재된 항목 및 서명

1. (앞면지에 기록 내용)

1	國朝名臣行跡	3	國朝碑銘
2	海東碑銘	4	野言別集

2. 內賜秩

1	周易	15	文選
2	詩傳	16	朱書節要
3	書傳	17	韻會
4	春秋	18	孝經
5	論語	19	[孝經]診解
6	孟子	20	瀛奎律髓
7	中庸	21	警民編
8	大學	22	通鑑
9	小學	23	續綱目
10	[小學]診解	24	東國通鑑
11	儀禮	25	醫學正傳
12	語類	26	訓蒙字會
13	自警編	27	小學舊件
14	名臣言行錄	28	內訓

3. 家印秩

1	周易(篆目)	80	通鑑	159	立岩集
2	[周易](隸目)	81	史略	160	仙源遺稿
3	[周易]診解	82	歷代史略抄	161	耳谷集
4	詩傳	83	史漢一統	162	桐溪集
5	[詩傳]診解	84	漢史抄	163	白洲集
6	書傳	85	古文眞寶	164	晚翠集
7	[書傳]診解	86	千古文瀾	165	沖菴集
8	禮記	87	歐文	166	保閑齋集
9	春秋	88	朱文酌海	167	稼亭集
10	四傳春秋	89	易學啓蒙	168	佔畢齋集

11	朱子大全	90	韻會	169	陸宣公集
12	孟子	91	三韻通考	170	陶靖節集
13	論語	92	攷事撮要	171	擊壤集
14	中庸	93	語錄解	172	皇華集
15	大學	94	參同契	173	簞岩集
16	孟解	95	[參同]契解	174	濂洛風雅
17	論解	96	[參同]契通真義	175	杜苑筆耕
18	庸解	97	鄧訣鄒解	176	二程全書
19	學解	98	警民編	177	退溪年譜
20	孟或	99	筭學啓蒙	178	栗谷年譜
21	庸或	100	類苑叢寶	179	牛溪年譜
22	學或	101	藝苑新編	180	栗譜附錄
23	續學或	102	大典	181	栗牛譜附錄
24	學集覽	103	大明律	182	詞訟錄
25	經書辨疑	104	楚辭	183	大明會典
26	易正文	105	杜詩解	184	抗義新編
27	詩正文	106	唐音	185	易講規
28	書正文	107	唐詩	186	聖學十圖
29	孟正文	108	坡翁詩	187	理學類編
30	小學(新二件)	109	詩學指南	188	救荒撮要
31	[小學](舊件栗吐)	110	李白大全	189	蘭雪軒集
32	[小學]診解	111	杜律	190	徽僧詩
33	中庸九衍	112	精言妙選	191	梅月堂四遊錄
34	大學衍義	113	詩學全書	192	孔子通記
35	[大學]衍義補	114	東醫寶鑑	193	朴通事
36	性理大全	115	醫學入門	194	正俗篇
37	爾雅註疏	116	醫林撮要	195	西征錄
38	周禮訓雋	117	萬病回春	196	溫陽陪從錄
39	聖學輯要	118	本草	197	丹陽誌
40	宋名臣言行錄	119	診解痘瘡方	198	武夷誌
41	朱書節要	120	診解救急方	199	竹溪誌
42	朱書記疑	121	辟瘟方	200	夙興夜寐箴
43	五禮儀	122	壽養叢書	201	天地萬物造化論
44	孝經大全	123	養生月覽	202	農家集成
45	[孝經]診解	124	容齋集	203	農事直說

동춘당 후손가 가진 「家藏書籍簿」의 작성시기에 대한 고찰

46	孝經	125	敬亭集	204	天朝紀行錄
47	靑丘風雅	126	谿谷集	205	黃石公素書
48	四聲通解	127	白沙集	206	晉州敘事
49	文章範執	128	九畹集	207	柳淵傳
50	家語	129	守夢集	208	奉先雜儀
51	心經	130	西垞集	209	丁丑錄
52	[心經]發揮	131	濯纓集	210	景賢錄
53	[心經]釋疑	132	高峰集	211	日省錄
54	近思錄	133	楊浦稿	212	童子習
55	[近思錄]釋疑	134	象村集	213	唐律廣選
56	儀禮經傳通解續	135	牧隱集	214	己卯錄
57	儀禮圖	136	芝川集	215	擊蒙要訣
58	儀禮喪服圖式	137	北窓集	216	栗谷實紀
59	延平答問	138	冶隱集	217	秘錄
60	家禮	139	龜岩集	218	篆韻
61	[家禮]考證	140	龜峰集	219	篆韻便覽
62	[家禮]集覽	141	聽松集	220	篆大學
63	[家禮]諺解	142	德溪集	221	東還封事
64	喪禮備要	143	桑榆集	222	內訓
65	喪祭問答	144	愚伏集	223	皇明紀略
66	疑禮問解	145	寒岡集	224	唐詩鼓吹
67	五服沿革圖	146	訥齋江叟稿	225	東萊博議
68	五先生禮說	147	疎庵集	226	篆千字
69	南華經	148	破閑集	227	韓石峯千字
70	五倫全備記	149	白麓丫湖稿	228	自庵千字
71	易學圖說	150	峒隱集	229	皇明理學名臣言行錄
72	繫辭	151	竹牖集	230	東史
73	啓蒙	152	叢桂集	231	栗谷集
74	[啓蒙]傳疑	153	睡隱集	232	訓蒙字會
75	綱目	154	挹翠集	233	恩津宋氏譜
76	鑑綱會要	155	大谷集	234	礪山宋氏譜
77	宋鑑	156	思庵集	235	谷山延氏譜
78	續綱目	157	晦齋集	236	章懿公子譜
79	[續綱目](唐本)	158	南冥集	237	紀譜通編

4. 借來秩

1	文獻通考	3	東史纂要
2	綱目	4	醫學入門

5. 不秩類

1	書傳	11	後山集
2	詩傳	12	柳州集
3	小學	13	歐陽集
4	[小學]診解	14	名世文宗
5	孟子診解	15	事文類抄[聚]
6	退溪集	16	古今醫鑒
7	樂靜集	17	草堂集
8	栗谷集	18	醫林撮要
9	左傳	19	素問
10	皇明十大家	20	通鑑

6. 書帖秩

1	東書堂集	37	自庵草書	73	新豐墓表
2	戴鴻堂書法	38	□□□□會圖	74	鄭參議碣
3	匪懈澄道歌	39	學堂碣	75	大成殿
4	芙蓉堂記	40	朴司諫碑	76	居正碣
5	自菴筆蹟	41	旌門碑	77	黃岡碑
6	落花流水	42	李忠肅碑	78	冲庵碑
7	鄭贊成墓誌帖	43	王考小碣後面	79	菁川碣
8	金生書	44	中國歷代圖	80	尹同成碣
9	成宣兩廟御筆	45	俗□碑	81	韓清平碑
10	宣廟御筆	46	□洞碑	82	金陽城碣
11	今上御筆	47	重峯碑	83	龜川碑
12	趙子昂赤壁賦	48	具監察碣	84	泉谷碑
13	東坡筆	49	完院碑	85	大谷碣
14	拱北樓記	50	柵察詩碣	86	陵城碑
15	楊蓬萊書帖	51	李大諫碑	87	時敏堂夜對圖

동춘당 후손가 가진 「家藏書籍簿」의 작성시기에 대한 고찰

16	春種	52	魚蟹	88	忠烈祠
17	衛夫人書	53	呂將軍碑	89	朴承旨碣(大字)
18	五柳帖	54	王考小表大字	90	丙午迎接題名錄
19	酒德頌	55	沙溪先生碑	91	丙午迎接圖
20	河西帖	56	沙溪先生墓表錄	92	具承旨墓表(大字)
21	孤山小手帖	57	圭庵筆	93	御筆
22	右軍十七帖	58	光州校記	94	殉義碑陰記
23	海東名跡	59	金命國畫	95	東地圖
24	孤山草	60	對	96	孤山筆
25	橋山石本	61	王考碣	97	許氏碣
26	金剛經	62	慎獨碑	98	嘉禮時契會圖
27	吳興	63	豐□碑	99	天使時契會圖
28	右軍百韻帖	64	桂潭	100	牧使先祖碣
29	石峯[大唐中興]頌	65	睡翁碣	101	洪監司碣
30	顏魯公中興頌	66	柵忠言碑	102	聽松筆
31	石峯草廬詩序	67	持平祖妣碣	103	寒岡碑
32	牛溪先生碑	68	旌門前面	104	先考小表八分大字
33	忠孝節義	69	睡翁小表	105	宋正字碣
34	先考碣	70	蘆碑	106	南原金進士碣
35	太極陰陽節氣圖	71	李平山碣(大字)	107	白鷺
36	蘇氏恩□圖	72	先考墓碣前面	108	鷓鴣

